



# 라이브러리 로드(Library Road), 함께 떠나볼까요?



임 미 숙  
정책연구팀  
위원회 자료실 담당

지난 7월, 외부기관 자료실의 운영·관리 시스템과 각 기관 자료실이 소장하는 언론법제 정보를 살피기 위해 국내기관(서울지역) 8곳을 탐방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언론도서관,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저작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실, 인권자료실이 그곳이다. 법원 및 언론유관기관의 발간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위원회 자료실의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자료구입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는 알찬 기회였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된 만큼 해당 부처 및 소속기관의 발간자료를 다량 비치하고 있다. 국내의 방송통신법제 및 각종 현안사업에 관한 사료들이 있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자료 탐색이 가능한 곳이라.

한강을 끼고 여의도로 향하니 국회의사당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국회도서관이 있다. 늦은 밤까지 개방되는 넓은 열람실과 쾌적한 편의시설 덕분인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곳곳을 메우고 있다. 최신자료실, 정간열람실, 디지털 입법자료센터 등 방대한 지식창고가 눈앞에 펼쳐진 기분이다. 휴관일(둘째·넷째 토요일, 국정공휴일)을 제외하면 토·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에도 이용할 수 있더니 더욱 반갑다.

여기서 잠깐, 광화문 프레스센터 내부에는 몇 개의 도서관이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리니 위원회 자료실이 보인다. 호기심에 좀 더 높은 층을 눌러본다. 13층에 한국언론도서관이 있다. 국내의 언론분야 저널 및 연구자료 등을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해 온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의 도서관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법률 관련 자료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해 온 곳은 어디일까? 자연스레 발걸음이 서초동 법원단지로 향한다. 대법원 건물 안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은 전국 각급 법원도서관 중 소장자료 내역이 가장 많다

(총 332,525권, 2012년 6월 30일 기준). 민·형사 법원 조정사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전문적인 법률자료가 풍부하다.

그런데, ‘공법(公法)에 관련된 자료가 좀 더 많은 곳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곳이 떠오른다. 바로 헌법재판소 도서관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생겨나 헌법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분야의 학술자원 확보가 중요하니만큼,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다.

그 다음으로 찾아가 본 곳은 개포동의 저작권도서관. 서울 강남우체국 건물 6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규제 완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방송법, 저작권법 등 매우 특수한 영역에 관한 참고자료가 많다.

잠깐 동안 양재천을 거닐며 노곤해진 몸의 피로를 풀었다. “라이브러리 로드”도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간다. 좀 걷다보니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인다. 이곳에도 자료실이 있다던데...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실은 국내외 법령 정보의 수집·관리, 법제 관련 조사·연구자료로 가득했다. 특히 국외 방송·통신·문화법제에 관련된 참고자료가 많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연구원의 발간물 목록과 내용도 검색할 수 있지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뒤 도서관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도서관 여행의 끝자락에서 들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자료실. 자료회원 및 단체가 방문·등기우편·택배를 이용해 자료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다. 한 달에 한 번 인권영화가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상영되니 관심 있는 이들의 참석을 권한다.

하늘이 푸르고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감싸는 가을이다. 수필로 메마른 감성을 채워도 좋고, 교양서로 지식을 채워도 좋겠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언론 관련 서적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